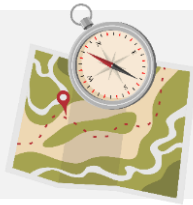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의 낯설음, 그리고 익숙함

서진영

세계적으로 K-문화 전성시대이다. 한국문화의 팬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형성되었다. 중앙아시아 구석구석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을 향한 동경이 대단하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이 직접 방문해 축제의 장을 열어준다는 건 그저 꿈 같은 일일 것이다. 나 또한 그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름조차 낯선 타지키스탄에 가게 될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멀고 생소한 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지키스탄은 몰라도,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은 들어 봤다고들 한다. 파미르고원은 웅장한 자연과 거친 트레킹을 즐기는

여행자들의 명소이다. 이 대자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시작해 이동하는 여정이 대표적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타지키스탄까지 직항 노선은 없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가서 1박 후 환승으로 이동하는 뻘뻘한 일정을 소화해야 닿는다. 결국 타지키스탄을 가게 된다면 자연스레 중앙아시아 2개국을 여행하게 되는 셈이다.

어쩌면 ‘중앙아시아 나라는 다 비슷하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다. 물론 독립국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구성원이었고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저마다 색깔은 미묘하게 다르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페르시아 문화가 녹아든 아랍의 모습이 짙은 나라로, 인근국과도 분위기에 차이가 있다. 한편 언어는 타지크어를 쓰는데,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는 공용어로 러시아어가 잘 통하는 편이었다.

이처럼 거리도 멀고 생경한 나라에 한국문화 알리는 일에 동참하러 왔다. 출국길에는 걱정만 앞섰는데, 짧은 기간 동안 현지에서 다양한 모습을 접하면서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되었다.



건조해서 분수가 많은 두산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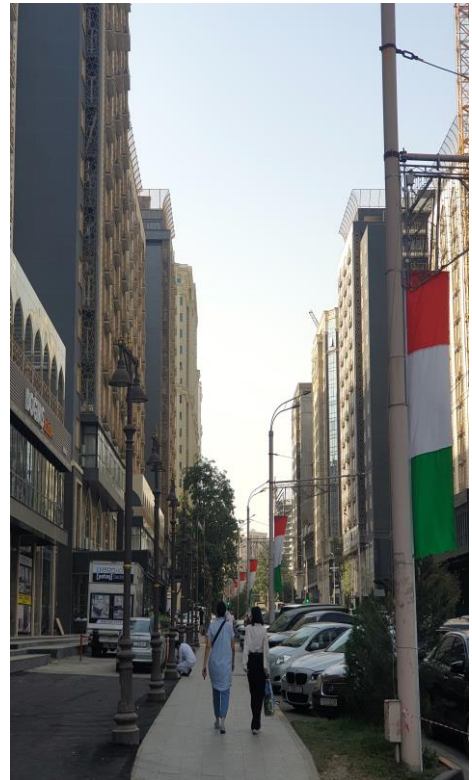
후끈하고 신기한 두산베의 첫인상

2023년 9월, 아직 여름의 기운이 머물러있는 타지키스탄 두산베 공항에 도착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힘으로 걷는 건지 사람들에 밀려 움직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공항 앞은 마치 두산베 온 시민이 마중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파가 엄청났다. 특별한 날이라 그런가 했지만, 알고 보니 항상 사람이 많다. 가는 걸음마다 외국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현지인의 수많은 눈동자가 느껴져 우리 일행은 재빠르게 공항을 벗어났다.

두산베는 더위 속에 먼지가 낀 듯 뿌연 느낌이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 타지키스탄의 여름 기후는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온 건조한데, 우리가 방문한 시기에는 모래바람까지 일어 마스크가 필요할 만큼 공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햇볕을 직사광으로 받지 않아 활동하기는 더 낫다고 했다. 날이 맑을수록 이곳의 내리쬐는 햇살은 불탈 듯 뜨거워서 진이 빠질 정도라니, 한편으로는 모래바람이 있어 다행이라 해야 하나. 도착 후 목적지 가는 길은 다이내믹했다. 현지 경찰이 시내 주요 도로를 다 막아버려 차량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그때가 두산베에서 중앙아시아 6개국 정상회담이 진행된 시기여서, 경호는 삼엄했고 주요 도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한때 러시아에서 경험한 ‘완벽한 도로 통제’의 모습을 여기서도 목격하니 묘한 반가움이 들었다. 아무튼 큰길 대신 곁길로 계속 돌아가다 보니 골목골목을 관찰하게 되었다. 좁은 골목에는 나지막하고 낮은 집들이 이어졌고 사람은 드문드문 보였다. 그 모습에 ‘현지

서민은 어렵게 사는구나’를 선불리 판단하려는 순간, 곧 코너를 도니 기다란 나무들과 고층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 공사 현장이 나타났다. 금방 본 시골 골목과는 사뭇 다른 현대적 분위기였다. 아직 두산베는 한창 개발 중이었다. 이동하면서 골목 탐험을 통해 두산베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었다.

그렇게 타지키스탄 두산베를 만난 첫인상은 후끈하고 신기했다. 이 첫인상은 현지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감흥으로 바뀌게 된다.



현대적 모습의 두산베

현지 택시 기사의 한국 예찬

인구 120만 도시 두산베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다.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 정도. 버스는 늘 현지인으로 꽉 차 있고, 차량마저 낙후해 웬지 그 자체가 불안해 보였다. 택시는 상판의 간판과 외관만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현대차와 기아차인 걸 보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택시가 도로에 꽤 많아, 두산베에 머무는 동안 이동할 일이 있으면 주로 택시를 이용했다. 한국처럼 도로에서 빈 차를 향해 손만 들면 되니 택시 잡기도 쉽다. 비용은 운행하는 동안 기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돼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본료는 10소모니(1,100~1,200원)로 저렴해서 부담도 없다.

어느 날, 일정에 늦어 택시를 잡아탔다. 러시아어로 행선지를 밝혔고, 기사는 반가웠는지 운전하면서 러시아어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나는 즉각 ‘코리아’라 했더니, 어떤 코리아인지 궁금한지 기사는 “남한, 아니면 북한?”을 되묻는다. 남한에서 왔다는 대답에 기사는 신나서 자동차 핸들에 붙어있는 브랜드를 가리키며 얘기했다. “보세요! 제 택시는 한국 차예요. 아주 좋은 차죠. 옛날에는 일본이 차를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 차가 최고입니다.” 맞장구칠 틈도 없이 택시 기사는 숨 가쁘게 말을 이어갔다. “한때 한국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만큼 가난한 국가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질 정도가 됐는걸요.” 기사의 넓고 깊은 식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연이은 칭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괜스레 기분도 좋아졌다.

짧은 시간 대화였지만 현지인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택시 대부분 현대차-기아차

한국문화 축제의 현장에서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한국에 진심인 사람들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코리아 페스티벌’이 두산베 시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나는 한식, 의료, 공연 등 행사 전반을 지원하면서 현지인의 열기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한식을 맛보고 싶어서, 한국식 치료를 받으러, 또 한국 공연을 즐기고 문화도 체험하기 위해 두산베 시민들이 삼삼오오 축제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멀리 한국에서 사절단이 여기까지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이 현지인들에게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의 유명세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를 좋아했다. 현지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라 모두 행복한 얼굴을 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사람들 입소문으로 축제는 점점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저녁부터 시작된 공연 시간에는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무대를 향해 열광했다. 무대 앞

객석 공간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해졌다. 낯설어할 법한 한국 전통 공연이나 멜로디에도 현지인들은 호응했다. 나조차도 초면인 아이돌의 노래를 모두가 흥얼거리며 따라불렀고, 중간중간 한국 관련 퀴즈에도 꽤 많은 사람이 정답을 외쳤다. 한국에 진심인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웬지 모를 감동이 벅차올랐다. 물음표 가득하고 뜨겁기만 했던 두산베가 부드러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작고 소박한 이슬람권 동네 타지키스탄, 사실 ‘별거 없겠지’ 했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열광하고, 한숨에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을 보니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난 듯 거리감이 확 줄어든 기분이 든다.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전진할 수 있겠다는 귀한 에너지까지 얻게 되어 감사하다.



코리아 페스티벌 관객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